

리너스
반 데 벨데

나는
욕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

아트선재센터 2024.
스페이스 1, 3.8. - 5.12.
스페이스 2

기획
김선정(아트선재센터 예술감독),
조희현(아트선재센터 전시팀장),
김나정(스페이스 이수 큐레이터)

주최
아트선재센터, 전남도립미술관,
스페이스 이수

주관
아트선재센터,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
협찬 갤러리바톤

A

SJ

C

리너스 반 데 벨데(b. 1983)는 스스로 '안락의자 여행자'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작업실에서 책과 영화, 뉴스와 잡지, 역사와 미술사 서적들, 작가와 위인의 전기 등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공상적 모험을 떠납니다. 사실에 기반한 자료와 이미지를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상상력을 통해 반 데 벨데는 자신만의 가상의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 작업으로 잘 알려진 대형 목탄화와 오일파스텔화를 비롯해 최근 확장해 가고 있는 영상, 조각 작업을 망라해 선보입니다.

스페이스1에는 작가 특유의 상상적 여행을 통해 만들어지는 평행우주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영상 <라 루타 내추럴(La Ruta Natural)>(2019-2021)에서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같은 제목처럼 초현실적인 세계로 여행을 떠나 가상과 실재, 모험과 일상, 삶과 죽음을 반복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는 작가의 얼굴을 본뜬 마스크를 쓰고서 작가의 도플갱어를 연기합니다. 주인공은 <과일가판대>(2019)에서 찾아낸 당근 열쇠로 잠겨 있던 해치 문을 열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합니다. 이때 주인공이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내려가는 터널은 또 다른 평행우주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현실에서 허구로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반 데 벨데의 영상 작업은 모두 작가의 작업실 안에서만 촬영되는 '스튜디오 영화'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는 작가 자신이나 어시스턴트, 갤러리스트, 친구들, 가족들이며, 영상에 등장하는 장치들은 모두 작가가 작업실에서 목재와 판지 등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물 크기의 세트장과 판지로 만든 자동차부터 미니어처 모형들까지 영화 속에 등장했던 세트와 소품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조각 작품들은 수공예 작업처럼 하나하나 공들여 제작되었음에도 취약한 재료와 만듦새를 일부러 드러내어 우리가 영화적 환영 속에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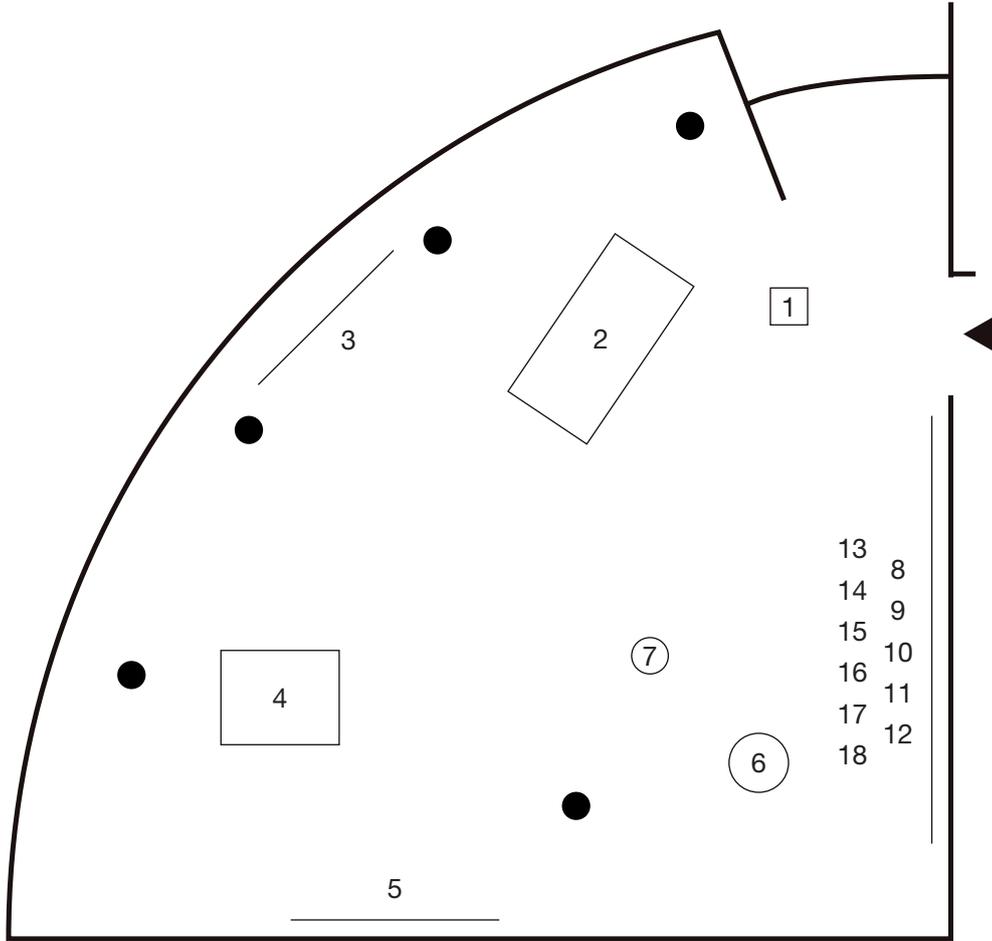
이번 전시의 제목은 스페이스2에 설치된 <나는 해와 달과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욕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2023)라는 작품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문장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가 그림 그리기에 가장 좋은 빛을 찾기 위해 프랑스 남부로 여행을 떠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반 데 벨데는 여러 색의 빛으로 가득한 자신의

추상화 밑에 마티스의 글귀를 직접 적어서, 빛을 찾아 여행한 20세기 색채의 거장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한편, 이 제목은 문자 그대로, 여행을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집,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근 채 이국적인 세계로 상상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전시된 회화 작업들은 반 데 벨데의 '허구적 자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태양 아래서 자연을 그리고자 했던 외광파 화가로 변신한 작가는 미술사를 가로지르며 에밀 놀데(Emil Nolde, 1867-1956),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 등과의 상상적 만남을 통해 흥미진진한 모험과 예술적 탐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반 데 벨데가 많은 미술 사조들 속에서도 외광파를 주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빛과 자연을 찾아 작업실 밖으로 나간 외광파 작가들이 작업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자신과 가장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광파 화가들이 실제로 보고 겪은 자연을 그림에 담는다면, 반 데 벨데는 반대로 작업실 안 안락의자에 머문 채 상상의 여행을 떠나 영감을 얻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외광파 작가로서의 반 데 벨데가 그린 하늘, 바다, 호수, 숲, 들판 풍경화들로 가득 찹니다.

영상 <하루의 삶>(2021-2023) 역시 외광파 작가의 하루 동안의 여정을 그립니다. 반 데 벨데의 얼굴을 닮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주인공은 마치 회사원처럼 아침에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들고 지하 깊이 숨겨진 금고로 출근합니다. 이 서류 가방 안에는 외광파 작가인 주인공이 모아온 내밀한 영감의 원천이 담겨있고, 이것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금고에 보관해 놓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처럼 반 데 벨데는 여러 분신들의 '하루의 삶'을 살아보면서 영감을 얻고, 이를 상상적 재현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허구적 자서전'을 만들어갑니다.

반 데 벨데의 작업은 상상과 현실, 가짜와 진짜, 미술과 언어 등이 충돌하며 긴장을 일으키고 또 서로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삶과 예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다면적 시야를 열어줍니다. 《나는 욕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를 통해 여러분은 때로는 터무니없는 공상같지만, 때로는 진지한 예술적 고민을 담은 작가의 내적 모험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적 여행을 통해서, 익숙한 일상을 새롭게 만드는 상상력이라는 무한한 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는지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캡션 아래 문구는 회화 작품 하단에 쓰여진 문구의 번역문입니다.

1. 〈마스크〉, 2019, 라텍스, 머리카락, 페인트, 40 × 40 × 50 cm
2. 〈소품, 자동차〉, 2018, 판지, 페인트, 나무, 혼합재료, 146 × 450 × 200 cm
3. 〈라 루타 내추럴〉, 2019–2021, 단채널 비디오, 13분 34초, edition of 3 and 2 A.P.
4. 〈산〉, 2019, 판지, 페인트, 나무, 혼합재료, 450 × 400 × 280 cm
5.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2018, 캔버스 위에 차콜, 아티스트 프레임, 300 × 600 cm (3부분, 각 300 × 200 cm)
 로버트 리노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신의 회화 작업실 아래 직접 파 놓은 지하실의 작은 방안에 머물렀다. 그 방은 작업실 뒤편의 무거운 자물쇠가 채워진 커다란 철제 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 거기엔 그 문으로

출입하려는 사람을 저지하는
일만 하는 어시스턴트가 있었다.
문 뒤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밤중에 만든 작품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직접 만든 컴퓨터로
시장을 분석하고, 무언가 사고
팔아 비밀리에 거액의 돈을 버는
로버트가 극도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6. <조립 라인>, 2020,
유색 도자, 좌대, ø 98 × 15 cm,
106 × 106 × 37 cm
7. <흰 줄무늬 야자나무>,
2023, 판지, 나무, 페인트,
315 × 50 × 50 cm
8. <내 머릿속에는 온통...>, 2022,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10 × 73 cm
내 머릿속에는 온통 딱따구리의
혀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생각뿐이야.
9. <그의 인간에 대한 경멸은 소리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12 × 132 cm
그의 인간에 대한 경멸은 소리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는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 <몇 주 간의 시시한 시간...>,
2022,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81.5 × 112 cm

몇 주 간의 시시한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조가 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고 의자에
앉아서 여러 가능한 해석들에 대해
한동안 생각해야 해.”

11.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2023,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61 × 112 cm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무한한 흰색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일지도 모른다는
결 깨닫기 전까지는 몇 번의
선이나 점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캔버스였습니다.
12. <나는 당신 바로 맞은 편에 앉아
있지만 결국 당신은 여기에
없습니다...>, 2023,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12 × 123 cm
나는 당신 바로 맞은 편에 앉아
있지만 결국 당신은 여기에
없습니다. 바로 그 부재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죠. 어쨌든 우리가
그린 그림은 서로를 비춥니다.
13. <안타깝게도 나는 다음 장면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2022,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73.1 × 89.4 cm

여기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까봐
안타깝게도 나는 다음 장면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14. <진통제가 없는 세상을
상상했다...>, 2022,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10 × 73 cm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진통제가 없는 세상을 상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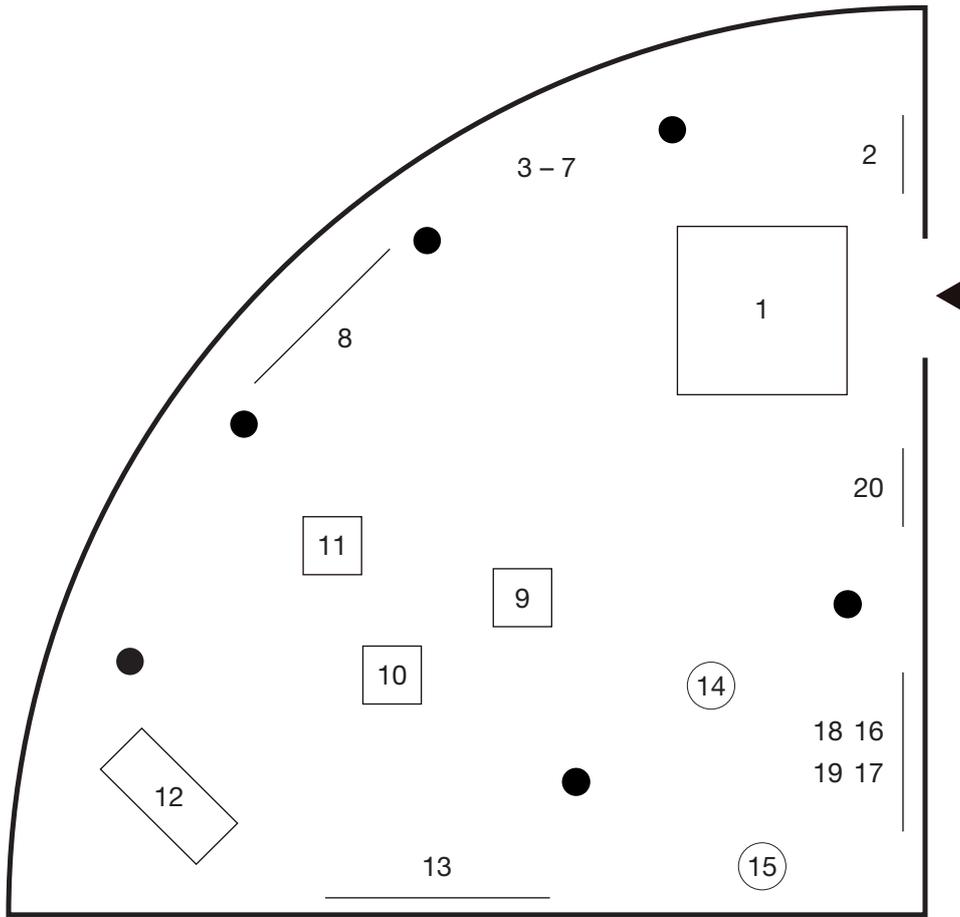
15. <쌈에 갈 수도 있었지만...>,
2022,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10 × 73 cm
쌈에 갈 수도 있었지만 나는
물병을 가지러 갔지.

16. <12년 동안 나는 여기에 왔다...>,
2022,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73 × 110 cm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12년 동안
나는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장소인
여기에 왔다. 시간이 흘러도
움직이지 않는 멈춘 이미지.

17. <자, 나에게 빨간 물감이 있어...>,
2022,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73.1 × 110 cm
자, 나에게 네가 찾는 빨간 물감이
있어. 여기서 최대한 빨리 나가자.
뛰어. 뛰어. 정신 똑바로 차려.

18. <친애하는 에밀, 당신의
작품들을 화면에서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2023,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73 × 96 cm
친애하는 에밀, 당신의 작품들을
화면에서 스크롤하고 최대한
확대해보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1. <소품, 산호>, 2020, 판지, 카펫, 페인트, 나무, 금속, 혼합재료, 281 × 351 × 433 cm
2. <지베르니에서의 모네>, 2020, 디본드 위에 프린트, 액자, 223.4 × 146.4 cm
3. <큰 야자수 2>, 2023, 판지, 나무, 페인트, 230 × 130 × 130 cm
4. <대나무 5x>, 2023, 판지, 나무, 페인트, 290 × 40 × 40 cm
5. <파인애플 나무>, 2023, 판지, 나무, 페인트, 80 × 50 × 50 cm
6. <작은 식물들>, 2023, 판지, 나무, 페인트, 90 × 160 × 100 cm
7. <작은 야자수>, 2023, 판지, 나무, 페인트, 110 × 50 × 50 cm
8. <하루의 삶>, 2021-2023, 단채널 비디오, 17분 3초, edition of 3 and 2 A.P.
9. <소품, 모형1>, 2022-2023,

- 페인트, 판지, 나무, 혼합재료,
184.5 × 70 × 79 cm
10. <소품, 모형2>, 2022-2023,
페인트, 판지, 나무, 혼합재료,
161 × 63 × 121 cm
11. <소품, 모형3>, 2022-2023,
페인트, 판지, 나무, 혼합재료,
195.5 × 97 × 85 cm
12. <과일가판대>, 2019, 판지,
페인트, 나무, 혼합재료,
260 × 220 × 225 cm
13.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 2023, 캔버스 위에 목탄,
아티스트 프레임, 300 × 600 cm
(3부분, 각 300 × 200 cm)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
14. <선인장 보울>, 2023, 판지, 나무
및 페인트, 70 × 100 × 100 cm
15. <작은 선인장>, 2023, 판지, 나무,
페인트, 130 × 40 × 40 cm
16. <제가 왜 그랬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2023,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20 × 73 cm
제가 왜 그랬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다면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화를 내지 않았다면 분명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 <노버트, 노버트, ... 집에 있는 거

- 알아요...>, 2023,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71 × 112 cm
- 노버트, 노버트, ... 집에 있는 거
알아요. 멀리서도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여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바라며 당신에게 갈테니 서로를
위해 시간을 만들어 봐요.
18. <현관문에 동판을 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2023,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44 × 112 cm
현관문에 제 이름과 어울리는
구절이 적힌 동판을 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
곳에 없으니까요.
19. <저라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것입니다...>, 2023,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01 × 112 cm
저라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것입니다. 아니면 빨래 집게로
후각을 막거나, 그토록 사랑하는
리얼리즘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20. <나는 옥조에서 해와 달,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망고를
먹고 싶다...>, 2023,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 140 × 116 cm
나는 옥조에서 해와 달,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망고를
먹고 싶다. 담뱃재가 떨어진

목욕물은 끈적끈적 해지고
탁해지고 있다. 재떨이의 연기는
내 몸을 따라 둥둥 떠다니고.

작가 소개

리너스 반 데 벨데(Rinus Van de Velde, b.1983)는 회화, 설치, 조각,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가상과 실제, 평행우주 안의 무한한 개연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탐구해 왔다. 작가는 직접 촬영하거나 수집한 사진, 매체에서 클리핑 한 이미지나 역사적 인물의 삶에 대한 기록 등 일차적 사료를 기반으로 각 작품 속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한다. 실제적 사건들과 상상력 속에서 혼합된 가상의 이야기는 픽션과 논픽션의 영역을 오가며, 작가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의 모태가 된다. 특히, 작가와 유사한 용모의 인물이 등장하는 작업은 도플갱어, 평행우주 개념을 작품 세계에 끌어들이며 회화의 확장성을 모색한다.

리너스 반 데 벨데는 벨기에 앤트워프에 거주하며 작업한다. 2006년 신트 루카스 앤트워프(Sint Lucas Antwerpen)와 2010년 겐트의 HISK(Hoger Instituut voor Schone Kunsten)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벨기에 보자르(BOZAR, Brussels, 2022), 스위스 루체른미술관(Kunstmuseum Luzern, 2021), 프랑스 FRAC 페이드라루아르컬렉션(Frac des Pays de la Loire, Nantes, 2021), 스페인 말라가현대미술관(Centro de Arte Contemporáneo Málaga, 2020) 등이 있다. 작가의 작품은 벨기에 S.M.A.K.(Stedelijk Museum voor Actuele Kunst), 벨기에 앤트워프현대미술관(M HKA), 벨피우스컬렉션(Belfius Art Collection), 벨기에왕립미술관(Royal Museums of Fine Arts of Belgium), 네덜란드 헤이그미술관(Kunstmuseum Den Haag), 네덜란드 보르린덴미술관(Museum Voorlinden), 스페인 말라가현대미술관(CAC Málaga) 등지에 소장되어 있다.

관람 안내

관람 시간

12:00-19:00(월요일 휴관)

입장료

10,000 원(25세-64세)

7,000원(19세-24세)

5,000원(9세-18세)

도슨트 프로그램

일시

평일 오후 3시

주말 오후 3시, 5시

소요시간

40분

신청방법

사전 신청(웹사이트 참고)

및 현장 접수

비용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무료

그래픽 디자인

신덕호

© 2024 아트선재센터.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곡로3길 87

T. 02 733 8949

F. 02 733 8377

W. www.artsonje.org

A

SJ

C